통상교섭본부가 생각하는

새로운 통상 이야기



그림 : 이원복

산업통상자원부



발 간 사

문재인 정부와 함께 새롭게 출범한 통상교섭본부가 첫돌을 맞았습니다.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1년간 한미 FTA 개정 등 시급한 현안에 대응해 쉼 없이 달려오면서도, 한 편으로는 앞으로 우리 통상이 나아가야할 길에 대한 고민을 게을리 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무역과 미중 무역 분쟁,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기술과 상품의 등장이 통상 환경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기존 방식을 반복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돌파구와 전략을 찾기 위해 본부장 이하 실무 직원까지 '계급장을 떼고' 참여했던 끝장토론과 정책 간담회, 전문가 면담 등 총 30여 회 이상의 토론과 검토를 거듭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통상교섭본부가 생각하는 새로운 통상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 한권으로 담아 국민 여러분들께 선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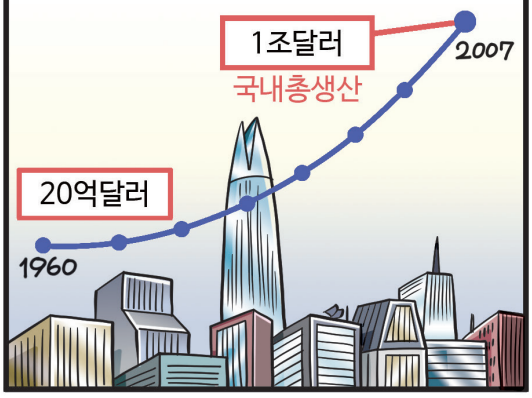
통상교섭본부는 다음 소개해 드리는 내용에 따라 미국·중국과의 경제통상 관계를 한 층 업그레이드 하고, 新남방·북방을 중심으로 신흥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새로운 패러다임인 '디지털 통상(Digital trade)'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 중에는 당장 추진해야할 협상과 통상 협력도 있고,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과제도 있으며, 미래 vision의 차원에서 제시한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도 담겨있습니다. 향후 이들을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상 정책으로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잦은 출장과 바쁜 업무 속에서도 새로운 통상 전략 수립에 힘 써준 통상교섭본부 모든 직원들과 이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덕성여대 이원복 교수님('먼나라 이웃나라' 저자)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 현 종**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부족한 자원과 산업기반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과 해외진출에 사활을 걸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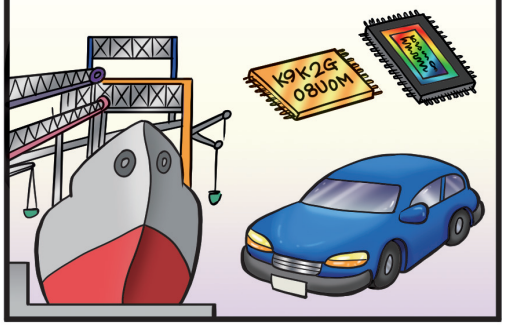
통상입국(通商立國)의 노력이었다.



가발, 봉제품과 OEM 등으로 세계시장으로의
걸음마를 뗀 대한민국 통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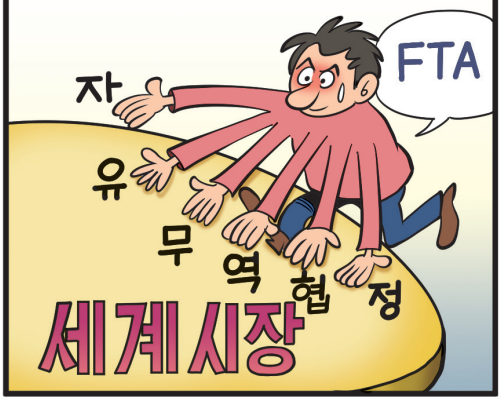


8-90년대 Made In Korea의
자동차, 선박, 반도체 등을 앞세워
힘찬 질주의 궤도에 올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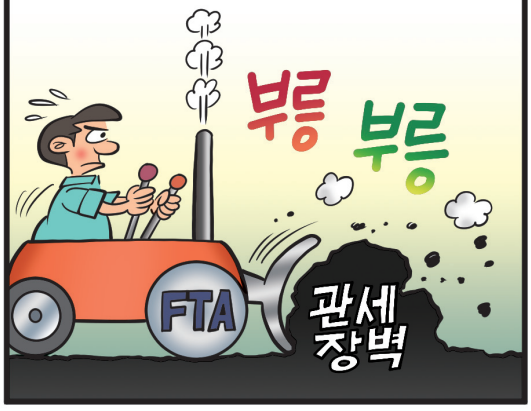


* OEM: 주문자 상표 부착 상품

2000년대 들어서는 경쟁국보다 한발 앞선
과감한 '동시다발 FTA'를 통해



미국, EU, 중국을 포함한 세계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하여



전세계 GDP의 77%의 시장으로 통하는 '경제 고속도로'를 개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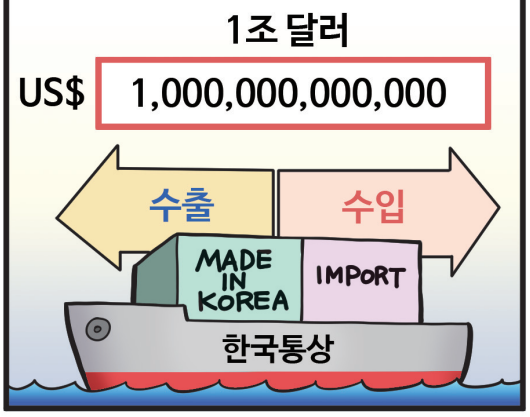
(2018.8 기준)



중미 5개국 ('18.2월 서명)
파나마,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세계 9번째 무역 1조불 달성('11년)



세계수출 6강('17년)에 빛나는
당당한 통상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1	중국	US$ 22,633억
2	미국	15,467억
3	독일	14,483억
4	일본	6,981억
5	네덜란드	6,520억
6	대한민국	5,737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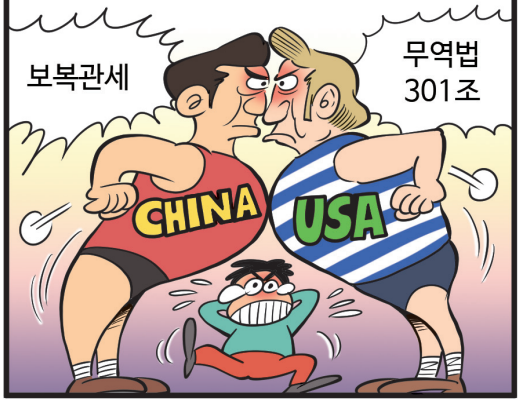
그러나 그 간의 성과에 안주하기에는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거세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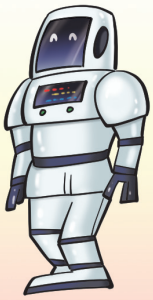
미국-중국간 '무역전쟁'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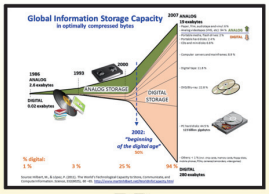
6.3억명의 인구, 5%대 높은 성장률 등
잠재력이 풍부한 ASEAN 등의 신시장에서
일본에 밀리고 있다는 위기의식 등이 그 것이다.



더구나 AI, Big Data 등 기술혁신으로 성큼 다가온
'4차 산업 혁명'의 흐름은



AI



B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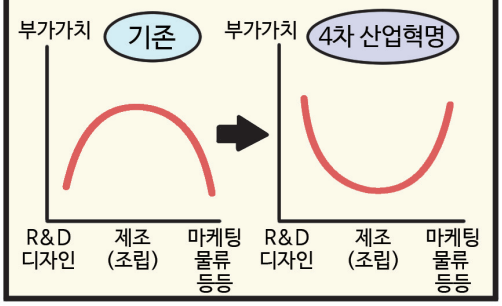


IOT

* AI: 인공지능 BD: 빅데이터 IOT: 사물인터넷

글로벌 산업과 교역의 구조를
뿌리부터 바꾸어 놓을 기세로 밀려오고 있다.

단계별 부가가치 일명 'smile curve'



그간 Fast-Follower*로서
선진국 문턱에까지 다다랐다면



* 빠른 추격자

4차 산업혁명 만큼은 우리가 First-mover*로서
주도해야 한다.



* 선두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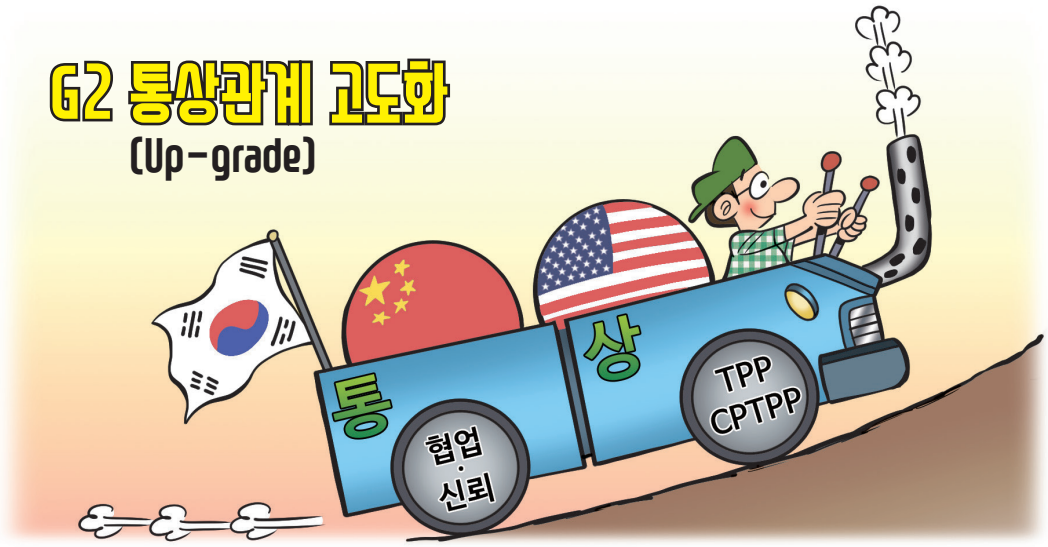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과감하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지금



* 아인슈타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태어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그리는
대한민국 통상의 미래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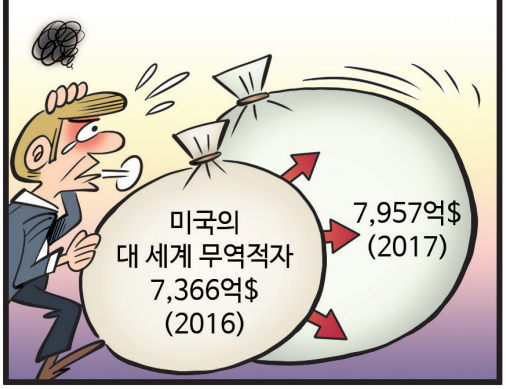


* 地經學/ geo-economic

미국과는 개정된 FTA를 기반으로 한 이익의 균형과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미국의 가장 큰 관심은 자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 가드는 물론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고 있고, 이러한 공세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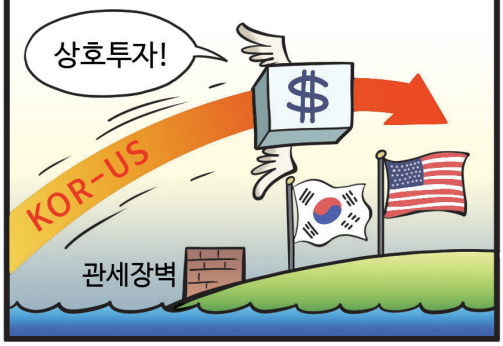
다행히 우리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공세에서 벗어나 한 숨 돌리고 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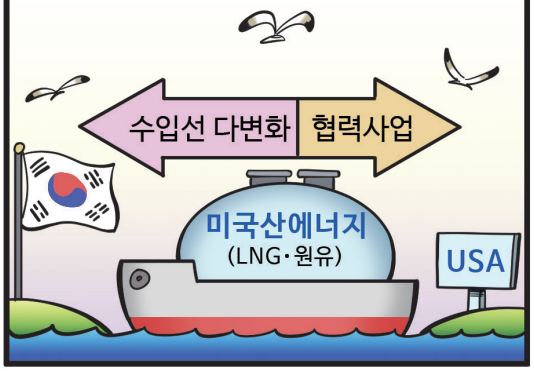
안심하지 않고 관세 부과가 자동차 등 다른 주요 품목에 번질 것에 대비하여 '실리'를 최우선으로 대응해 나가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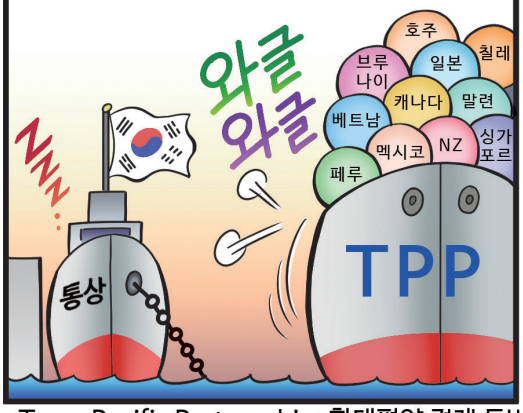
또 한미 FTA를 기반으로 한미 양국간 상호투자를 확대, 관세 장벽을 넘도록 지원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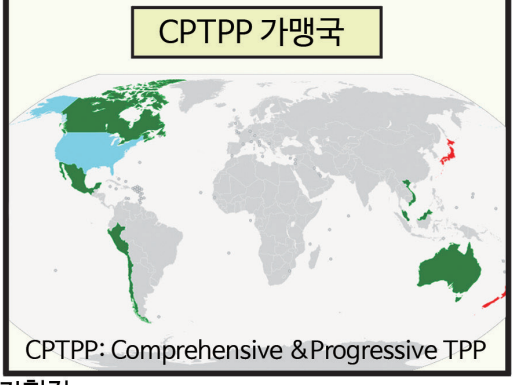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한미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지난 10년간 우리 통상호가 멈춰있는 동안 미·일 등 12개 국가 간 TPP*가 논의 돼왔다.



지금은 미국이 빠진 11개국 CPTPP가 발효직전이지만 언제든 미국도 다시 돌아 올 수 있는 상황이다.



* Trans 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

정부는 미국의 TPP 복귀까지 감안,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의견을 모아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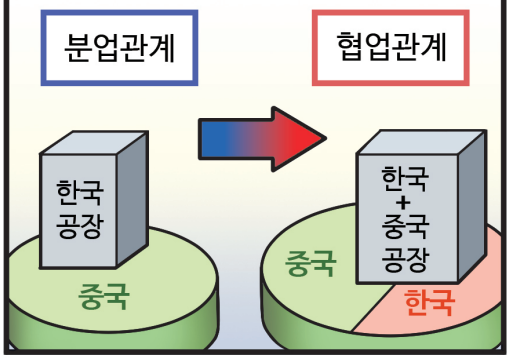
이 결정을 위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략적으로 국제공조를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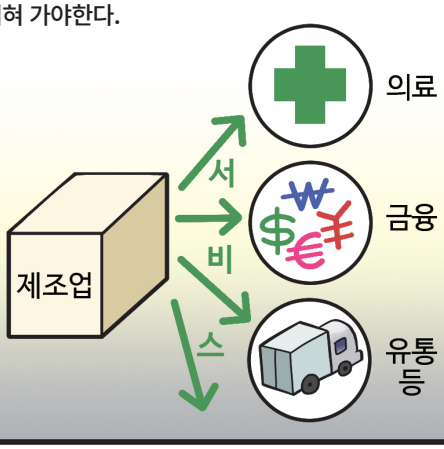
중국과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새로운 신뢰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제조업 중심의 단순 분업 관계를 긴밀한 협업 관계로 전환하고



협력 분야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넓혀 가야한다.



호랑이 옆에 살면서 잡아 먹히지 않으려면 호랑이 등에 올라타 중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양적, 질적으로 심화시켜야 한다.



특히 중국과의 정치·외교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에



양국 간 경제·통상에까지 불확실성이 번지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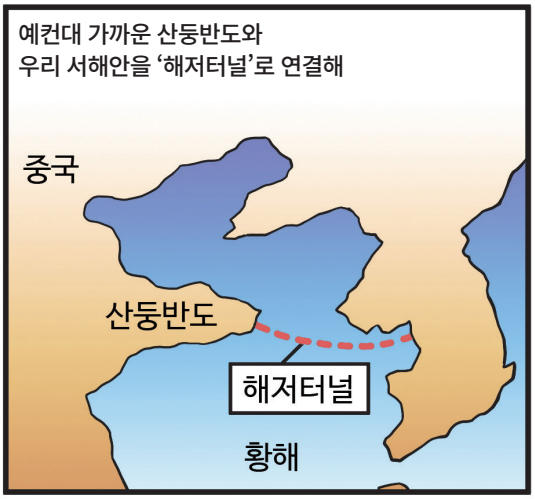
사람과 물자가 지금보다 더욱 자유롭게 오가며
생활과 생업 영역에 까지 깊이 파고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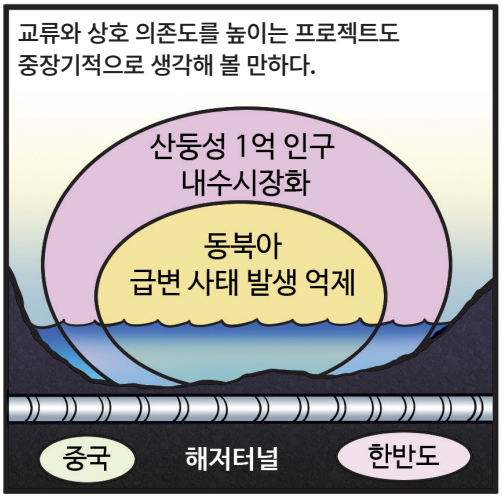
우리 기업인지 중국 기업인지 구분이 없는 수준의
협업과 신뢰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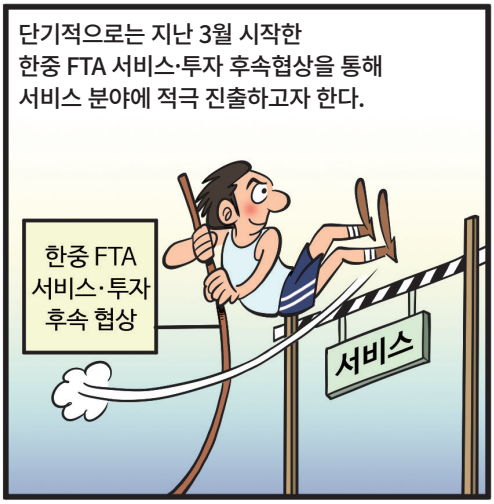
예컨대 가까운 산둥반도와
우리 서해안을 '해저터널'로 연결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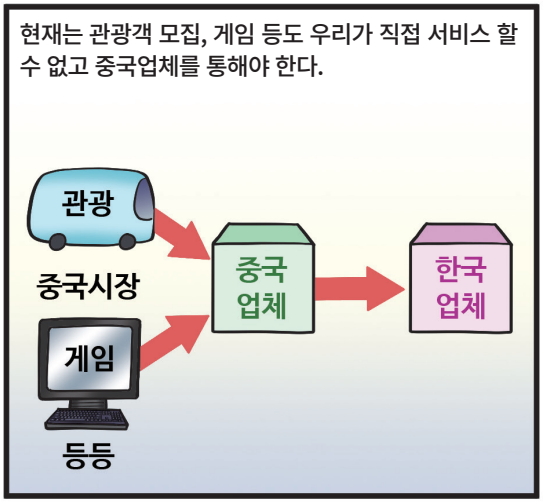
교류와 상호 의존도를 높이는 프로젝트도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만하다.



단기적으로는 지난 3월 시작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서비스 분야에 적극 진출하고자 한다.



현재는 관광객 모집, 게임 등도 우리가 직접 서비스 할
수 없고 중국업체를 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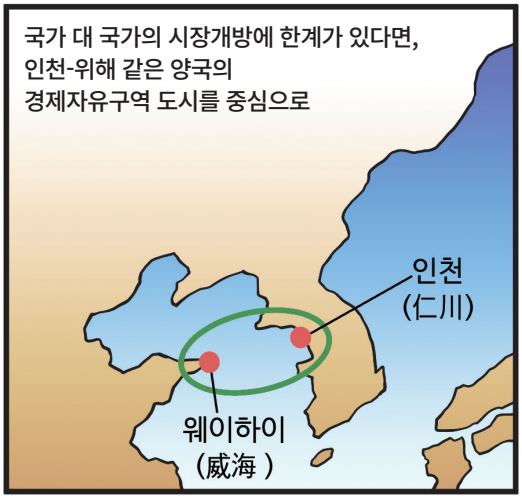
관광, 문화, 금융 등 시장을 열고



우리의 의료기관과 관련 인력의 진출 여건을 마련하면 해외 일자리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국가 대 국가의 시장개방에 한계가 있다면, 인천-위해 같은 양국의 경제자유구역 도시를 중심으로



기존 FTA를 뛰어넘는 '도시간 FTA'수준의 시장 연계도 추진해 볼 수 있다.



해당 특구간에는 서로 '자신의 나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국경없는 수준의 지역경제 통합을 실험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한다.



최근 G2(미-중)간의 분쟁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판세를 봐야한다.



미중 분쟁의 표면에는 관세전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세 전쟁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양자 분쟁은 통상을 넘어 한반도 문제에서의 주도권 다툼의 발현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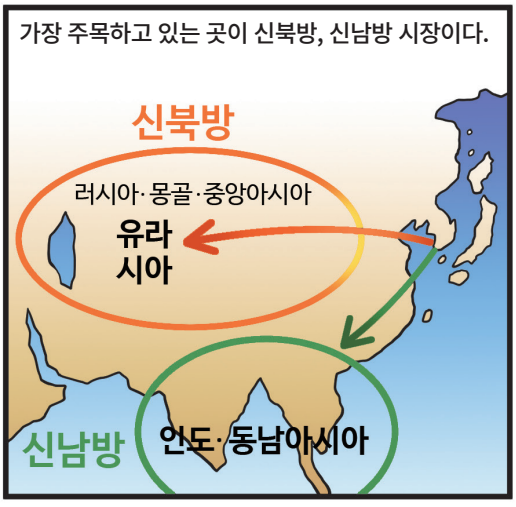


새로운 산업동력을 찾아 신산업을 선점하고 상품·서비스 육성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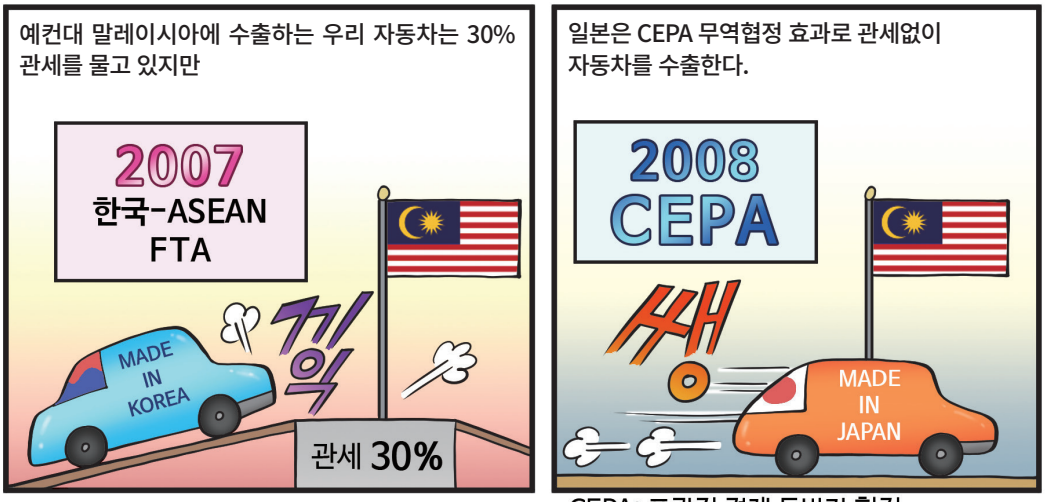

신남방·신북방
정책으로
시장을 다변화
정책
유라시아
시장
신남방
신북방
인도
·
ASEAN시장


미국·중국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으로 눈을 돌려
우리 통상을 확대해야 하는데
새로운 시장
중국
미국
개척과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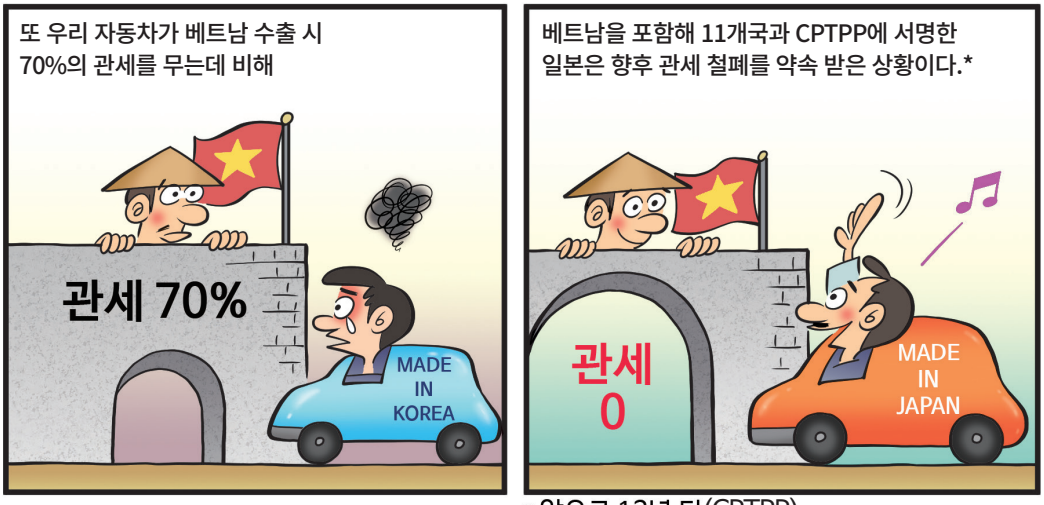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곳이 신북방, 신남방 시장이다.
신북방
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
유라
시아
신남방
인도·동남아시아


신남방정책의 핵심은 일본 등 경쟁국에게 뺏긴
ASEAN과 인도 시장을 되찾아 오는 것이다.
인도
ASE
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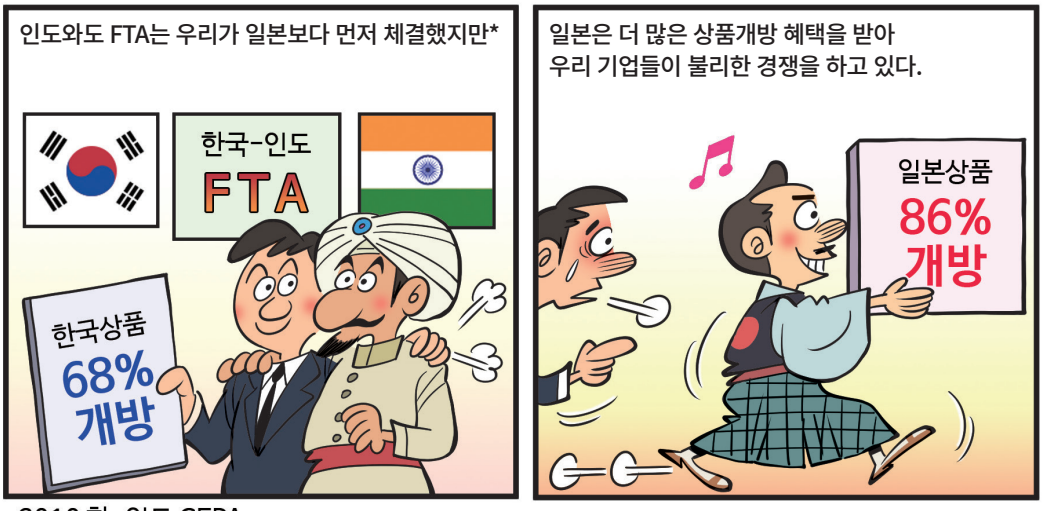

이 지역과의 FTA 네트워크는 우리가 선점했지만
방치해 둔 사이 일본에 우위를 빼앗긴 상황이다.
FTA



* CEPA: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 앞으로 13년 뒤(CPTPP)



* 2010 한-인도 CE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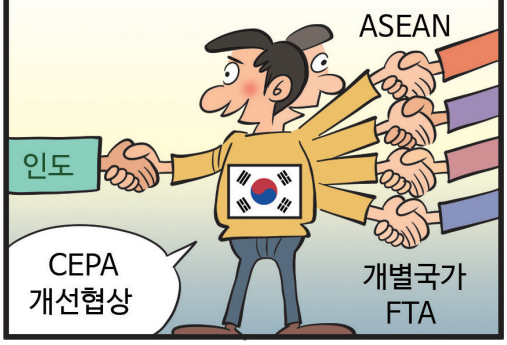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RCEP*



ASEAN 10국
+
한국·중국·일본
+
인도·호주
뉴질랜드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아세안 개별국과
양자 FTA도 추가로 추진하여



* RCE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경쟁국과 최소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경쟁여건을 마련하려고 한다.



아세안의 경우 추가적인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ODA, 상생협력 등 지원을 늘려갈 것이다.



또한 자동차 등 기존 상품 시장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제품에 혁신 기술과 서비스, 인력을 결합하여



스마트시티, 스마트에너지 등 우리만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키워나간다면



* 홍콩의 사이버 포트 1, 2 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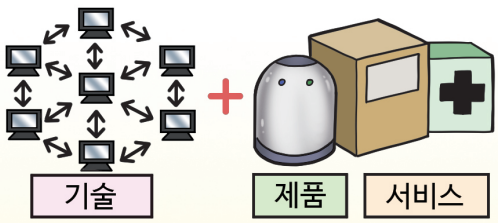
급속한 도시화, 에너지 부족 등 상대국의 문제해결도 도우며 우리의 시장도 넓혀 나가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한국형 혁신 시스템이란?

총 부가가치에서 ICT 부문 비중
상위 국가 (OECD 국가 *2013)

1	대한민국	10.7
2	일본	7.02
3	아일랜드	6.99
4	스웨덴	6.82
5	헝가리	6.09
6	미국	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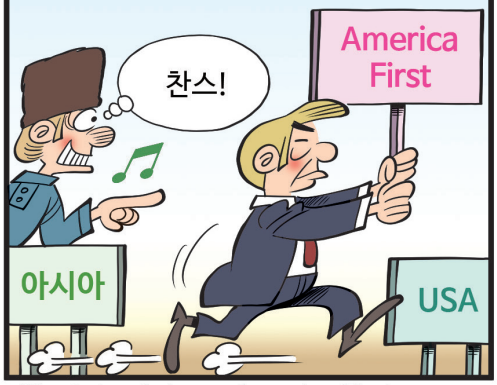
구분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농장
구성 요소	+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ITS) + 통합관제 기술 + 스마트 그리드 + 교통 인프라	+ 사물인터넷 기술 (IoT) + 자동제어 시스템 등	+ 신재생 발전 설비 + ESS* + 스마트 그리드	+ 빅데이터 + 생육관리 소프트웨어 + 냉난방 제어장치
타겟 시장	• 인도(도시화 급진전) • 싱가포르 (스마트화 도시)	• 인도네시아 • 베트남 (섬유공장 등 진출 많음)	• 인도네시아 • 필리핀 (도서지역 에너지 문제)	• 인도네시아 • 베트남 (양계·양돈 중심)
진출 전략	• 신도시 개발 경험 • ICT 경쟁력등 감정 활용	• 현지 진출 한국 기업 우선 보급 후 확산	• 도서지역 '분산형 전원' 수요 활용	• 현지마케팅/ 계약 지원 • A/S 기반 구축

*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새 북방정책은 북극항로 개척의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이 아시아에 초점*을 맞추다가
미국우선**으로 대외정책을 바꾸면서



* Pivot-to-Asia ** America Fir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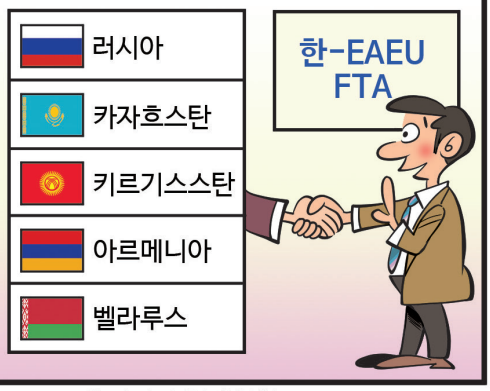
이 공백을 틈타 러시아가 극동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신북방정책과 연계하여 시장다변화의
기회로 선점해야 한다.



우선 한-EAEU* FTA협상을 조속히 개시·체결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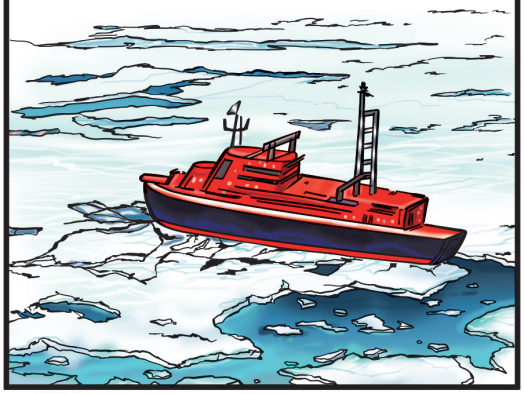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서비스 프랜차이즈가
러시아 유망상권을 선점할 수 있게 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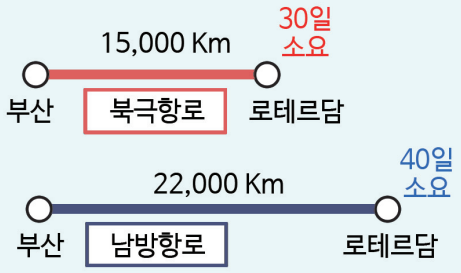


* EAEU: 유라시아 경제연합

신북방정책의 핵심은 '북극항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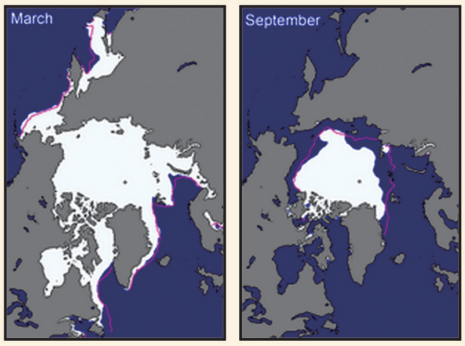


수에즈 항로보다 10일 이상 단축되는 북극항로는 우리에게 새 희망봉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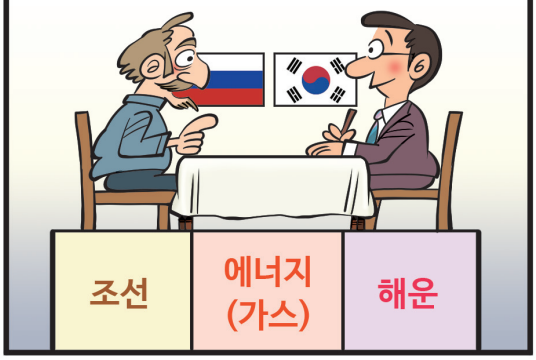


* 쇄빙선

북극항로를 통해 실질적인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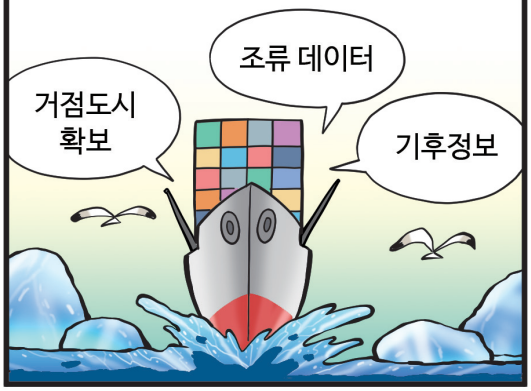


조선·에너지(가스)·해운 분야에서 한국-러시아간 세부 협력 프로젝트를 착실히 추진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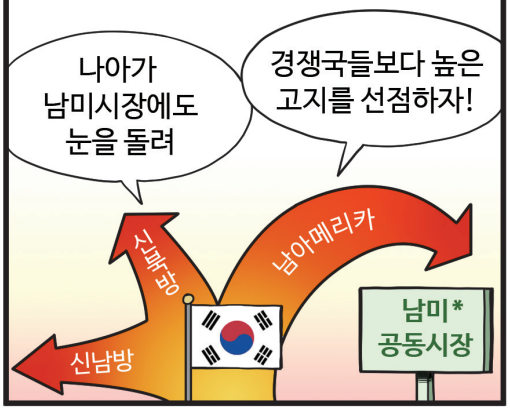


* 북극해의 얼음(3월/ 9월) 〈2013년〉

북극항로 이용을 통해 항로상 거점도시, 조류, 기후 등 각종 데이터를 먼저 구축 할 수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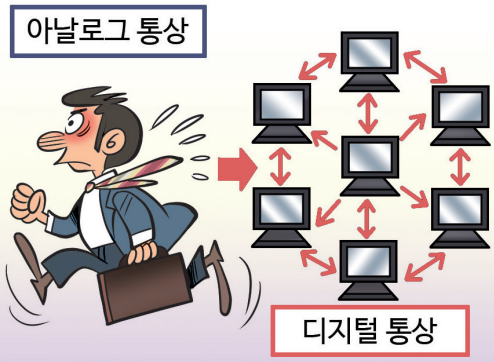
우리 부산이 과거 런던과 같은 해상보험 중심지로 성장 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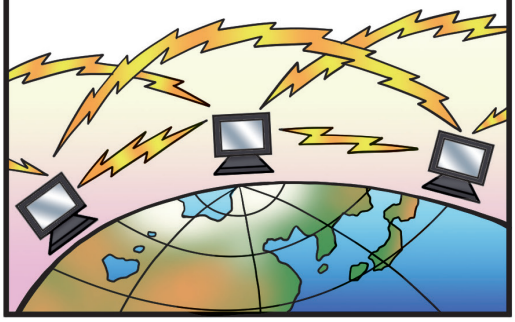
* MERCOSUR (남미대륙 GDP 76%)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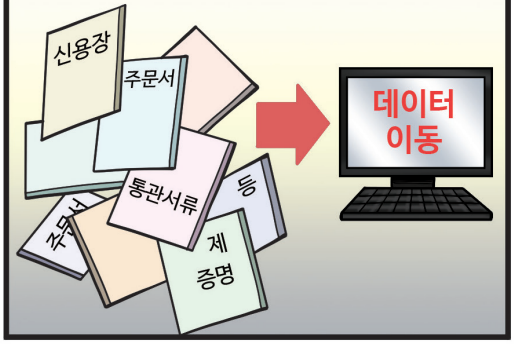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디지털 통상 입국을 해야 한다.



이제는 기계들이 주고 받는 데이터가 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시대이며



전문가들은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촉진·관리하는
것이 통상의 미래라고 전망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상품수출 강국이지만
데이터 교역에선 44위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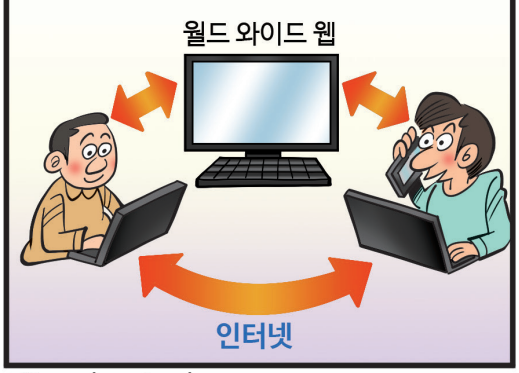


* 2016년 맥캔지 보고서

디지털 통상이란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가간 교역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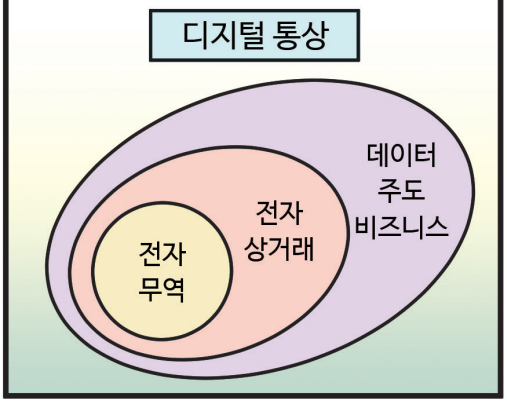


좁은 의미에선 전자무역*과 전자상거래**를 일컬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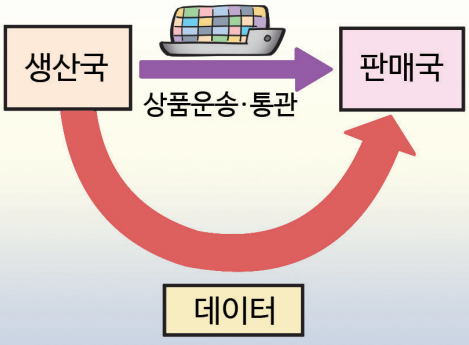


* Paperless trade ** e-commerce

넓은 의미에서는 데이터 주도 비즈니스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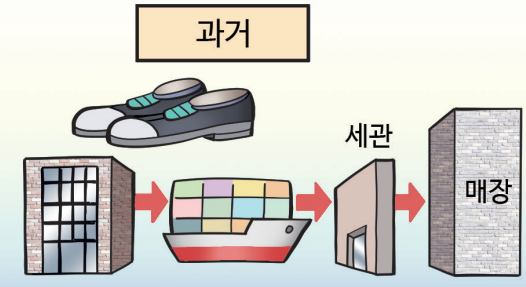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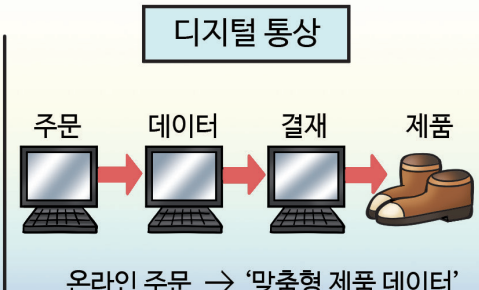
즉 상품·서비스가 '데이터'의 형태로 국경간 이동·판매되는데



* data driven business

유형 재화 중심의 통상 전략·규범이 쓸모없어지는 위기이자 반면에 누구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회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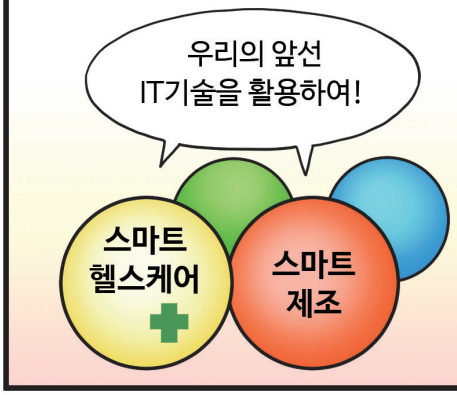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분야에서 우리의
경쟁력으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육성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별화 된 영역을
선점해야 하는데



스마트 헬스케어와 스마트 제조분야에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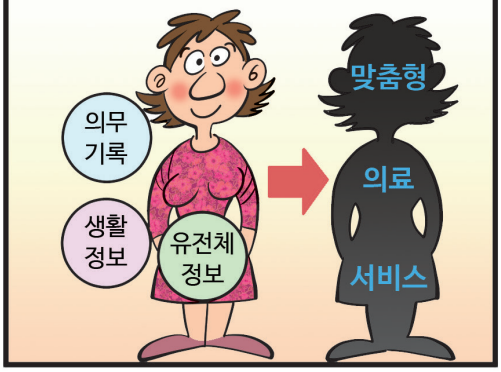


이제는 의료 데이터만 있으면 지구상의 사람 수 만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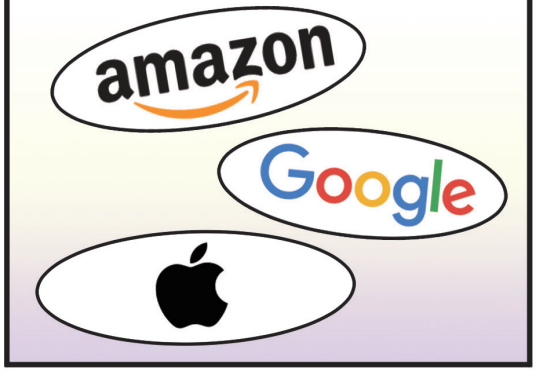


* precision medic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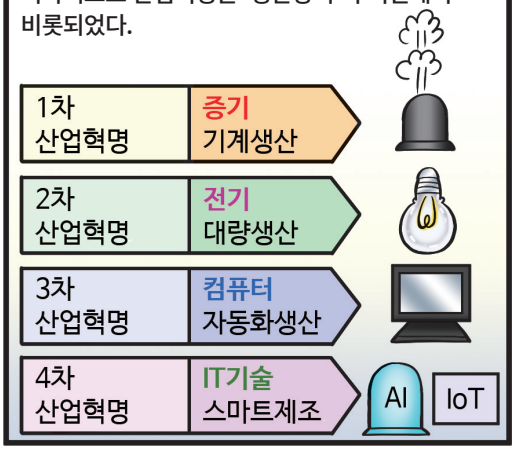
의료분야에서도 빅 데이터 기술과 결합하여
맞춤형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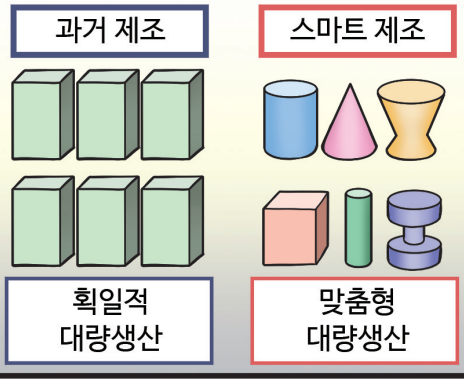
최고 세계 유수의 IT 공룡들도 앞다투어 의료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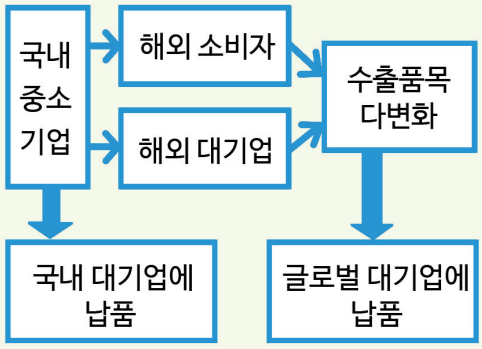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은 '생산방식'의 혁신에서 비롯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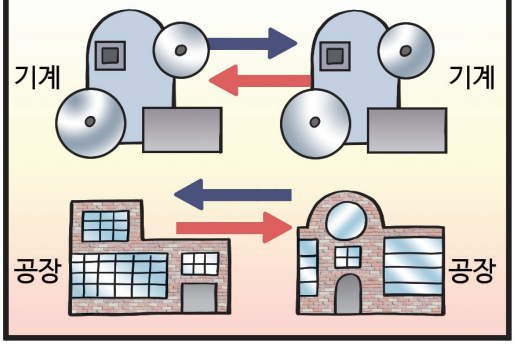
스마트 제조의 핵심은 '맞춤형' 대량생산으로의 변화이다.



중소기업 공장도 복수의 글로벌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데이터를 통한 기계와 기계, 공장간의 소통이며 그러한 시스템의 표준이 핵심요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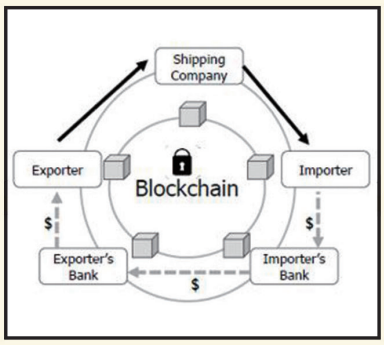
이를 위해 스마트 공장 분야의 글로벌 표준화에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국내 스마트 공장과 해외진출 공장과의 연계, 스마트 공장 시스템 수출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디지털 통상정책의 하나로,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무역 플랫폼

무역관련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한국형 무역 플랫폼'을 구축, 실용화하고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개방형 중견국가간 '디지털 메가 FTA'를 주도해 갈 계획도 다듬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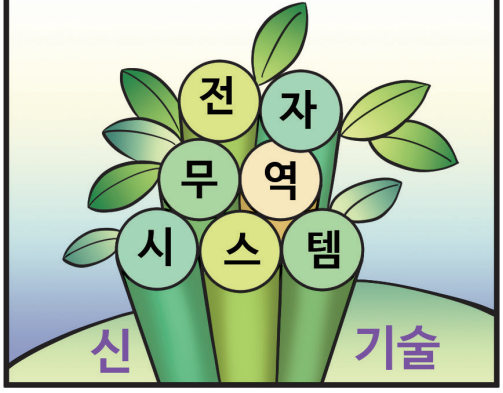
그 동안 우리가 주도하는 메가FTA가 없었는데



자유무역에 뜻을 같이하는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칠레 등의 국가와 함께*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전자무역시스템을 운용, 발전시켜 나가고



* like-minded Country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통관·물류 등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한편



나아가 국가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각종 규제와 제도의 정비, 5G 등 기술적 표준화를
제안, 추진해 나간다.



디지털 통상을 적극 추진하려면 국내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 등 규제 논의가 정리되어야 하고



관계자들이 모여 규제 수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도 꼭 필요하다.



과거 우리가 적극적인 FTA를 통해
통상선진국으로의 첫 발을 내디딘 것처럼



이제는 '디지털FTA'를 통해
우리 청년과 중소기업들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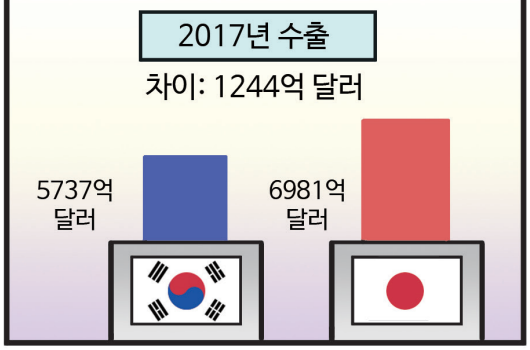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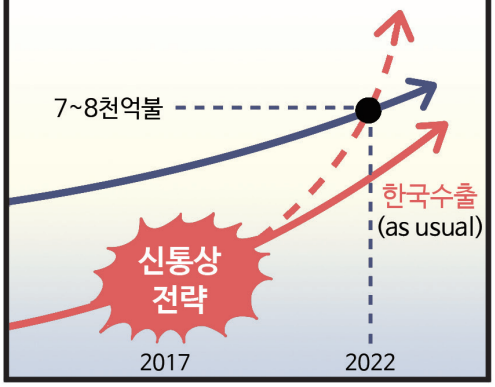
지금까지 펼쳐보인 새로운 통상전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수출이 조만간 일본을 추월해 세계 4강으로
올라 설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를 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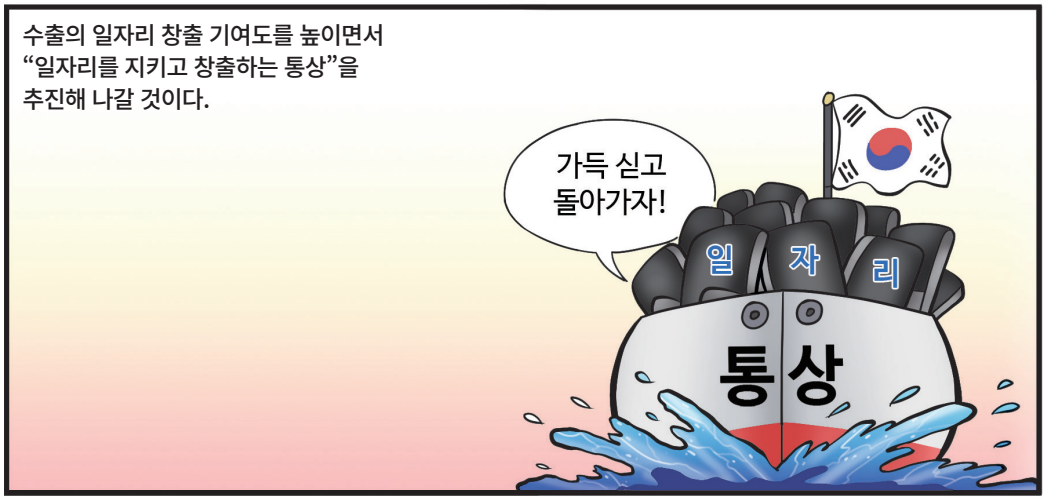
우리가 현 추세보다 수출 증가율을
매년 +1%P씩만 더 늘려 간다면



2022년경에는 약 8천억불 수준을 수출해 일본을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우리 수출이 일본을 추월하더라도
수출
국내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없다.
일자리


수출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높이면서
“일자리를 지키고 창출하는 통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가득 싣고
돌아가자!
일
자
리
통상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수출 구조를 과감히 전환하여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나갈 것이다.
통 상
교섭본부
국민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대한민국
통상
부응


산업통상자원부